

도, 개성공단 도내업체 지원대책 추진

TF 팀 구성...대출금 상환 유예·공장 보유 기업 부지알선·투자 보조금 등 지원 예정

10일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중단됨에 따라 전북도가 도내 소재하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 살리기에 나섰다. 12일 전북도는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수시로 기업 애로 사항을 수렴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소재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모두 의류 관련 업체로 전주 5곳, 김제와 익산이 각각 1곳으로 총 150여 곳(2012년 기준) 규모의 투자를 해 총 2,000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이들 기업 가운데 3곳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

상을 받을 수 있는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보험 규정에 따르면 최초 시설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감가상각분과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까지 고려하면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는 먼저 대출금 상환을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대출취급은행과의 협의 하에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3억원, 이차보전 2%)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시설, 운전 10억)을 지원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바이어들과 접촉해 남

품물가에 따른 신뢰도 상실 회복방안을 찾아 지원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생산공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알선과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TF팀은 이 부지사를 단장으로 해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국제협력과 및 전북중소기업청, 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ECO융합심유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정부에서도 개성공단 피해 기업을 위해 지원책

을 마련 중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도 긴밀한 연락을 통해 요구사항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피해규모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일일화면 창구를 개설한 만큼, 단계별 비상대응 방안을 마련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해북도 개성시 봉동리에 조성된 개성공단에는 2015년 12월 현재 124개 국내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북측 근로자 540,60명과 남측 근로자 805명이 의류, 화학, 전기전자 등 123개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정영수기자

도, 4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2월15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전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건축물 등 전 분야 2만여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구조체의 안전 여부 등 하드웨어분야에서부터 재난 대비 교육훈련, 여부, 안전불감 관행 등 소프트웨어분야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안전상태를 진단한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 시설물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도 진단 이행실태 조사 ▲도지사를 포함한 도청 간부공무원의 현장행정 점검 실시 ▲신고 홍보와

포털사이트 및 앱을 활용한 도민 참여 유도 ▲재난 예방 민간단체를 활용한 예방강화 등의 4대 추진전략을 중점 추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민안전실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 번째를 맞는 '국가안전대진단'은 민·관합동 점검에 따른 하향식 추진방식 뿐만 아니라, 안전위해요인을 발견하면 직접 '안전신문고' 포털사이트 및 앱을 통해 신고하는 도민 참여형 상향식 추진방식을 병행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위험 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리잡고 있는 안전불감 관행까지도 점검대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위원회 장애인동계체전선수단 격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상일)는 지난 12일 제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결단식에 참석해 전북 선수단을 격려하고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결단식에 참석한 문건위원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경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물론,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과 지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제1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강원도 및 경기도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

/신광영기자



12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김제 죽산면 원기마을 경로당에서 '2016년 시·군 릴레이 민생탐방'을 이어가고 있다. 송 지사는 경로당을 복지거점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도복지여성국 업무정취

강영수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지난 12일 복지여성보건의료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당면 현안사항, 소관 부서 애로사항 정취 등을 위해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라북도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다.

강영수 위원장은 "도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관계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자 한다"며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은 결국 전북도 도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길이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송하진 도지사 김제·진안 민생탐방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2일 시·군 릴레이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김제와 진안을 방문했다.

이날 송 지사는 김제에서 지평선산단 투자기업인 (주)삼동허브(대표 신병일, 58세)와 이택미곡종합처리장(대표 김왕배, 51세) 등을 방문해 격려와 경쟁력 방안을 논의 했고 진안에서는 원연장마을과 우리나래 유일의 홍삼 명인인 송하수 대표(송화수 홍삼 영농조합법인)를 만났다.

먼저, 김제 원기마을 경로당을 방문한 송 지사는 "경로당을 어르신들 위한 복지거점으로 해 독거노인가족

사업, 한방주치의 등을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2014년 5월 김제지평선산단지에 투자한 (주)삼동허브(대표 신병일, 58세)에 방문해 "지평선 산단이 분양 초기라 산업환경 부족한 점은 있지만, 우리 도에 투자한 기업이 어려움 없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택미곡처리장을 방문해서는 "이택RPC가 내실있게 성장해 쌀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 지사는 진안의 원연장마을과 송화수 홍삼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했다. 오후에 진안군 꽃잔디마을로 더 잘 알려진 원연장마을을 방문한 송 지사는 "원연장 마을은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보람받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사는 농촌이라는 삼박방정을 실현하는 선두 주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안 민생탐방에서는 이항로 진안군수, 이항기 군의장, 김현철 도의원, 김갑기, 신갑수 군의원 등과 함께 했다.

/정영수기자

익산 금마면 쓰레기 소각 부주의 화재발생

지난 달 10일 익산시 금마면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가설 건축물 33㎡이 소실돼 약 19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완주군 고산면에서 잡풀소각 중에 비닐하우스로 연소가 확대돼 약 64만원의 재산피해가 생겼다.

11일 기준 전북도 화재 202건 중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98건으로 48.5%를 차지하고 이 중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는 15건으로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을 앞두고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업부산물의 소각에 따

른 화재발생이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도는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는 쓰레기 소각은 가연물질과 멀리 떨어진 불연재로 설치된 안전한 장소에서 반드시 관계인의 입회하에 소각기 등을 비치 후 소각토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도는 봄철 건조기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금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화기취급 금지, 입산 시 리미터 소지 금지 등의 주의가 필요하며,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소각할 때에는 관할 면사무소에 신고 후 공동 소각하기를 권한다.

/정영수기자

마을기업육성 공모사업 26일까지 신청·접수

12일 전북도는 지역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창출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마을기업육성을 위해 2016년도 공모 사업을 오는 26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지역축제 등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단위 기업이다.

도는 올해 마을기업을 2개소 지정·운영할 예정으로 이 중 1차년도 신규 11개소와 2차년도 12개소를 재선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마을기업은 해당 시

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지원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신청 전 마을기업 지원기관(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마을기업 교육과정을 사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등으로 구성되며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신규 마을기업은 1차년도에 5천만원 이내, 2차년도 3천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전북도 마을기업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 경영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영수기자

스피치·웅변·면접·리더쉽·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연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케어니케이션', '나를 세운말, 말만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등 방송출연

※ 과 목: ①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 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 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 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정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